

이야기 6 : 중풍병자와 친구들

주제말씀
[누가복음 5:24b]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신다는 소문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는 혼자 건지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중풍병이 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튼튼한 천과 나무를 준비해서 들것을 만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새처럼 날개라도 있었으면 날아서 갔을텐데..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모두 위를 쳐다보았어요. 친구들은 들것에 줄을 매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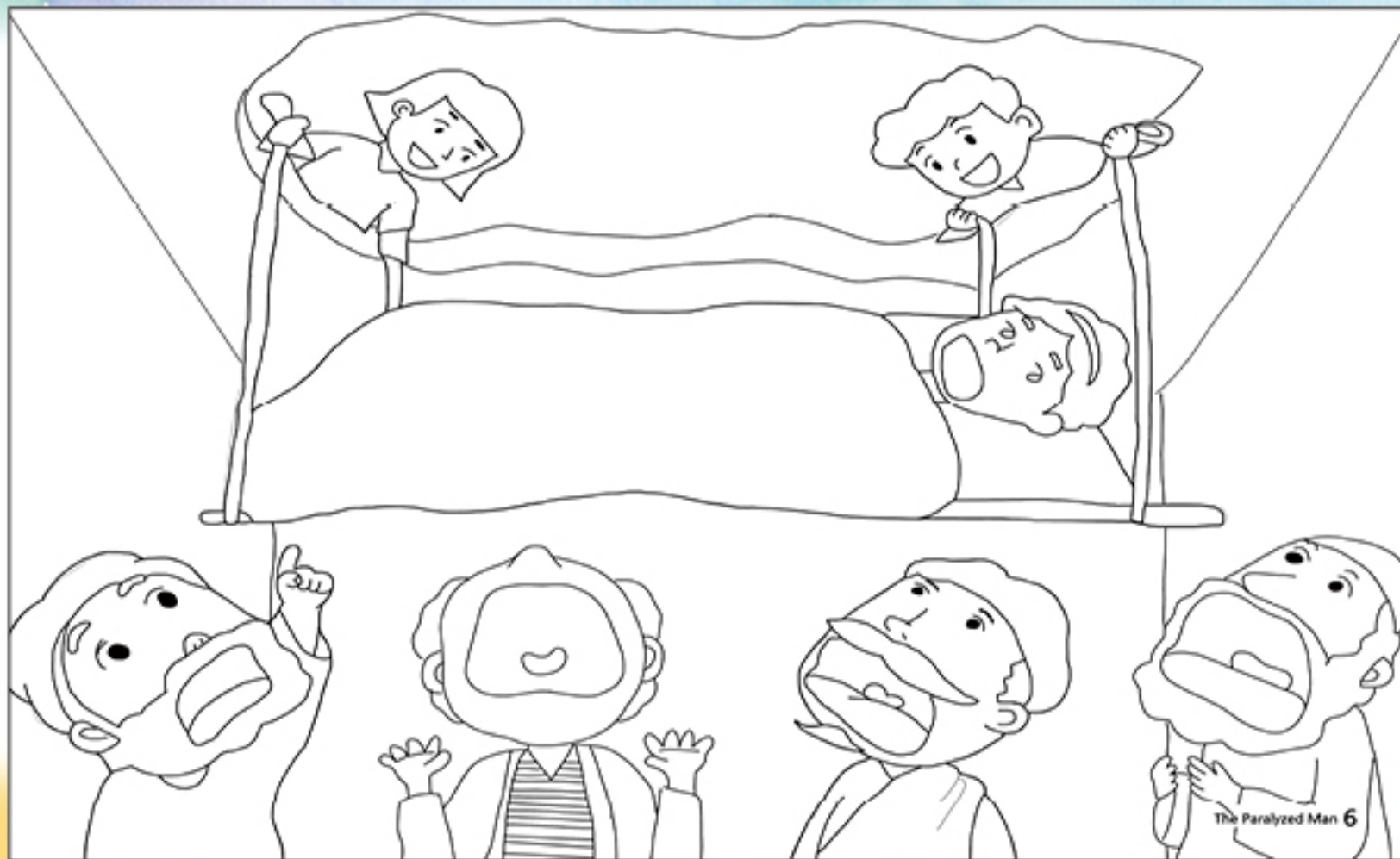
그러자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5:24b)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활동 2.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위에서 내려 주세요.

1. 그림 위 하얀색 선과 오른쪽 중풍병에 걸린 친구 그림을 오린다.
2. 오린 하얀색 선 사이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끼워 내려오게 한다.



